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1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telling) section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advice.

“토토가” 통해 잃어버린 나 찾아
간절함으로 다시 돌려놔야죠”

김현정, 새음반 ‘투게더 포에버 18’ 발매

가수 김현정(39)이 새 음반을 내고 방송 활동에 나서는데 4년4개월 만이다. 지난 2011년 2월 ‘1분 1초’ 활동을 끝으로 뮤지컬 ‘드림 헤어’에 출연하고 KBS 1TV 대하사극 ‘대왕의 꿈’에서 연기에도 도전했다.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며 가요계와 거리를 두던 그가 재조명 받은 계기는 1990년대 스타들이 출연한 MBC TV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였다. ‘둥다리 세시 가수’ ‘댄스 퀸’으로 불린 그가 파워풀한 고음으로 ‘그녀와의 이별’ ‘명’을 부르며 무대를 누비던 시청자들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살렸다. 탄력을 받아 김현정이 26일 새 음반 ‘투게더 포에버 18’(Together Forever 18)을 발표했다. 그녀는 “‘토토가’를 통해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며 “1990년대 세대에 영향을 준 노래들이 한 자리에서 불린 건 하늘이 준 기적이었다. 저뿐 아니라 모두의 감흥이었다. 제가 ‘제 2의 전성기’란 말을 들을지 몰랐다”고 시원스레 웃었다. 사실 그녀는 7집의 ‘B형 남자’(2004) 이후 발표한 음반이 크게 히트하지 못했다. 8집의 ‘살짜쿵’(2008) 활동 이후엔 음반제작으로 생긴 부채도 갚아야 했다. 지난해부터 1990년대 가수들의 여러 합동 공연에 나서며 차곡차곡 저금한 돈으로 제작한 게 이번 음반이다. 그녀는 “감사하게 노력했다 또 음반이 나왔다”며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간절하다. 목숨 걸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사실 ‘토토가’ 이전부터 음반을 준비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머릿속에 음악 작업밖에 없었어요. 음반이 잘 돼야 그다음에 또 낼 수 있으니까요. 심기일전하려고 저녁에 딸기 우유만 먹으며 다이어트도 해 ‘토토가’ 때보다 6kg을 감량했죠.” 4집의 ‘떠난 너’(2001)부터 프로듀싱에 참여한 그는 처음으로 직접 작사·작곡·편곡한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이번 작업을 하며 편곡팀 ‘빅 메시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녀는 “요즘은 싱어송라이터들이 많고 아이돌 가수도 직접 곡을 만든다”며 “아티스트가 자기 곡을 만들고 프로듀싱하는 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모습인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어텐션’(Attention)은 요즘 가요계에서도 ‘핫’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사운드를 품었다. 도입부터 한층 강렬해진 ‘김현정 표’ 댄스곡이다. 돌고래 소리처럼 2옥타브 ‘리’까지 올라가는 시원한 고음이 인상적이다. 노랫말에서도 변화가 엿보인다. 지금껏 ‘다 돌려놔~’(‘명’)라며 당당하고 센 여성을 대변했다면, 이번엔 ‘이렇게나 끌리는 날 너 받아주세요~’라며 사랑 앞에서 한층 간절해진 모습이다. 블랙 코미디언 이 곡의 뮤직비디오도 총격전과 자동차 추격전이 담겨 스케일이 크다. 그는 ‘열거적인 그녀’로 등장해 남자를 골탕먹이는데 결국 이 모든 게 남자의 상상이었다는 반전이 재미있다. 또 다른 곡 ‘순정’은 5집 곡을 리마스터링해 담았다. 애절한 피아노 연주로 시작하는 이 곡은 리드미컬한 록 사운드로 전개된다. 김현정이 직접 쓴 노랫말에는 한 여자의 순종적인 사랑이 표현됐다. ‘민발’은 김현정의 절제된 창법이 돋보이는 발라드다. 이번 음반의 3곡을 더해 총 131곡을 발표했다. 그녀는 “이젠 춤을 추며 고음을 내는데 체력이 달린다”고 웃었다. 1997년 데뷔해 올해로 18주년. 그는 1990년대 가요계 황금기를 누린 마지막 세대다. 고교시절 헤비메탈을 했고, 기획사 오디션을 보면서 입소문이 나 캐스팅됐다. 1996년 작곡가 최규성과 1집의 ‘그녀와의 이별’을 작업해 1997년도에 등장했다. 바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거짓말처럼 노래가 상승하며 역주행했고, 3집의 ‘명’(2000) 때는 대중적인 히트가수로 떠올랐다. 화려한 시절을 누렸지만 힘든 시간도 있었을 터. 그녀는 “정말 힘들 때는 완전히 동물 속에 들어가버리는 스타일이어서 영화 보거나 책 읽고 기도하며 지냈다”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나간 일이고 온전히 내 몫이니 내 안에서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파이팅’이 넘쳤다. “성공이란 걸 했을 때 어떤 맛이던 걸 상상하며 파이팅하는 거예요. 전 가수가 아니면 안 됐고, 앞으로도 가수로서 값어치가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다음 음반을 내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죠.”



김현정



씨스타 ‘셰이크 잇’ 7일째 음원차트 퍼펙트 올킬

걸그룹 씨스타(효린, 소유, 보라, 다솜)가 7일째 주요 음원차트 1위를 평정하며 ‘퐁당 퐁당’ 신화를 이어갔다. 지난 22일 공개돼 10개 음원차트 1위를 휩쓴 씨스타의 신곡 ‘셰이크 잇’(SHAKE IT)이 28일까지 7일째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정상을 지켰다. 또 멜론을 포함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엠넷닷컴,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벅스, 지니 등 총 6개 차트에서도 1위에 오르며 여류 대표 걸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28일 유튜브에서 약 440만 뷰를 기록 중이며, 중국 동영상 사이트인 인위메타이·유쿠·투더우·아이치이 등에서 917만 뷰를 돌파해 총 1300만 뷰를 넘어섰다. 또 지난 27일 모바일 앱 몬캐스트에는 농구장에서 행이 긴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치마를 똑같이 맞춰 입은 소녀들이 ‘셰이크 잇’에 맞춰 군무를 선보이는 커버 댄스 영상이 공개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화제다. 이로써 씨스타는 이번에도 흥행 불패를 이어갔다. 특히 빅뱅과 엑소의 경쟁 구도, 에이오에이(AOA)의 견제와 마마무의 상승세 속에서 ‘윙윙 캠프’로 불리는 팀답게 이름값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다. /연남뉴스